

'닥터 프리즈너', 시청률 · 실검 1위...KBS 암흑기 깼다



닥터 프리즈너의 시작이 좋다. 첫 방송부터 높은 시청률로 수목극 1위를 기록했고, 실시간 검색어까지

배우들의 연기와 스토리 전개에 좋은 반응

장악했다. 배우들의 연기와 스토리 전개에도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첫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극본 박계옥/연출 황인혁 송민엽)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학병원에서 축출된 외과 에이스 나이제(남궁민 분)가 교도소 전입이 된 후 기존 의료과장 선민식(김병철 분)과의 치밀한 수 싸움을 펼치는 드라마다.

이날 방송은 의사 나이제(남궁민 분)가 여대생 살인교사 혐의로 수감 중인 재벌가 사모 오정희(김정난 분)를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밖을 나가게 도와주는 모습으로 시작했다. 나이제가 그 대가로 받은 건 서서울

교도소 의료과장 추천서. 이어 태강 그룹의 만나니 막내 아들 이재환(박은석 분)과 악연이 소개됐고, 이재환이 피아시범으로 서서울교도소를 찾게 되면서 두 사람의 재회로 풀직한 긴장감을 선사했다.

교도소 내 '형집행정지'라는 색다른 소재와 이를 악용하는 의사와 돈 있는 권력층들의 이야기가 흥미를 자극했다.

'닥터 프리즈너' 1,2회는 시청률 8.4%, 9.8%(닐스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하며 SBS '빅이슈', MBC '봄이 오나 봄', tvN '진심이 닿다'를 제치고 수목극 1위를 달성했다. 3~4%대를 기록한 타 드라마에 비해 2배가 넘는 기록이다.

자체 최고 시청률 22.7%로 종영한 전작 '왜그래 풍상씨'의 후광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첫 방송 당일과 다음날까지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을 장악하는 등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남궁민 김정난, 최원영, 박은석 등 배우들의 연기력 칭찬이 많아 시청률이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KBS 수목극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1% 시청률 및 동시간대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며 오랜 부진을 겪었다. 이후 주말극 대모로 불리던 문영남 작가를 수목 미니시리즈에 배치하는 모험을 걸었고 3년 만에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기본 좋은 출발을 시작한 '닥터 프리즈너'가 KBS 드라마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일', 현대사 속 우리들의 이야기



'생일', '변호인' 이을 대한민국 현대사 속 우리들의 이야기.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다룬 '변호인', '택시운전사', '1987', '아이 캔 스피크' 등에 이어 영화 '생일'이 4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변호인'은 1981년 제5공화국 정권 초기 부산 지역에서 벌어진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한 숙물 변호사가 돈이 아닌 사람을 변호하며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전했다.

'1987'은 6월 항쟁을 전점으로 다룬 첫 한국영화로, 한 젊은이의 죽음이 어떻게 역사의 물결기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으로 확장되었는지, 1987년을 뜨겁게 살아갔던 용기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며 소중한 기억을 그려냈다.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취재하려는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로 간 택시운전사와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가슴 뜨거운 드라마로 그려냈다.

2007년 미국 하원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통과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아이 캔 스피크'

크' 또한 과거의 역사를 현대로 이끌어 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환기시켰고 우리의 부채 의식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 4월 개봉을 앞둔 설경구, 진도연 주연의 영화 '생일'은 2014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난 이들의 생일날 남겨진 이들이 서로가 간직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그린다. 세상 모든 가족에게 전하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 '생일'은 이종연 감독이 우리 곁을 떠난 아이의 유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더 많은 관객들과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감독과 배우들은 최대한 담담한 태도로 영화에 임했다.

영화로 연출한 이종연 감독은 "한걸음 물러서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영화를 통해 관객들께서 따뜻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떠난 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슬픔을 묵묵히 견뎌내는 엄마 '순남' 역을 맡아 풍부한 감정연기와 폭발적인 열연을 펼친 진도연은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진심을 전했다. 이들이 세상을 떠난 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아빠 '정일'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인 설경구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일'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함께 위로해주고 위안 받는 영화다. 우리 영화가 작은 물결이 꽤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영화 '생일'은 4월 3일 개봉한다.

Mnet 'TMI NEWS' 4월 25일 첫방...진행 전현무



Mnet이 오는 4월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대표 아이들의 최근 소식부터 어디서도 공개된 적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뉴스와 토크쇼 형식으로 전하는 'TMI NEWS'를 제작, 편성하는 것.

보통 'TMI(Too Much Information)'라고 하면 너무 과한

정보 혹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뜻하는 'TMI'를 떠올리기 마련. 하지만 제작진은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목요일 밤 Mnet에서 아이들에 대한 뉴스를 전하겠다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은 'Thursday

Mnet Idol'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과 관련된 TMI 개별 정보를 프로그램의 소재로 다룰 예정이며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토크쇼로 찾아가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TMI NEWS'의 진행을 이끌어갈 앵커로는 전직 아나운서이자 전 MC로 활약 중인 전현무가 낙점됐다. 자타공인 최고의 MC로 인정받고 있는 전현무가 10년 만에 뉴스 앵커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세계 최초 아이돌 전문 뉴스의 앵커로서 활약하게 될 그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한편, 'TMI NEWS'의 앵커로 나선 전현무의 모습이 담긴 티저가 오늘 최초로 공개됐다. 웃음기를 빼고 진지함을 담은 전현무의 모습이 전직 앵커였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연출을 맡은 Mnet 신유진PD는 "Mnet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인 아이돌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돌 버라이어티 뉴스 토크쇼를 런칭하게 됐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다방면의 여러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돌 팬들은 물론 남녀노소 모두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이 될 것"이라며, "또한 'TMI NEWS'는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최애 아이들의 'TMI'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이돌과 관련된 사소하지만 유행한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남길 수 있으며, 채택된 참여자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Mnet의 목요일 밤을 책임질 아이돌 정보 파워쇼 'TMI NEWS'는 오는 4월 25일 저녁 8시 첫 방송 예정이다.

'골목식당' 톳김밥 · 돌미역라면 대박 예감...최고의 1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20일 밤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평균 시청률 1부 7.7% 2부 8.2%(이하 닐스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해 압도

적인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주요 광고관계자들의 중요 지표인 '2019 타깃 시청률'은 3.1%(2부 기준)로 역시 동시간대 1위였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9.5%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은 '거제도' 네 번째 편으로 꾸며져 각 식당들이 신메뉴로 첫 장사에 돌입했다. 총무김밥집은 거제 김밥을 메뉴에 올려 손님들을 맞이했고, 조보야, 막내작가, 막내PD가 합세한 '뽕시래기' 시시단과 세븐틴 민규, 버논도 출격해 '비리부어'를 진행했다. 민규와 버논은 '빙계정갈이' 처음이라 걱정했지만 "따로 먹어도 맛있겠다"는 호평으로 눈길을 끌었고, 민규는 "빙계 특유의 바다향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며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도시락집은 톳김밥과 돌미역라면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MC들은 느린 손의 사장님을 격려했지만 사장님은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손님들을 응대했고 신메뉴에 대한 호평도 받으며 백종원을 흐

뚝하게 했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9.5%로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한편, 보리밥&코다리집은 기존 메뉴들을 보완해 장사를 시작했다. 특히, 보리밥&코다리집은 허영만 만화 '식객'에 등장했던 권영인 명인이 사장님을 위해 출격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사장님은 이를 바탕으로 손님들을 받았고,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으나 혼자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조보야가 투입됐지만, 손님 줄은 쉽게 줄어들지 못했고, 장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음력 2월 16일)



▶**소띠** 노력한 보람이 있는 유익한 날. 직장인 2, 4, 6, 9, 10월생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 사, 자, 천 성씨 금전운은 따르지만 소핑은 신중히 해야 할 듯. 생각 없이 물건을 구입하면 반드시 후회할 수. 특히 서, 북간에서의 거래는 피할 것.



▶**사띠** 오늘은 침묵이 제일이다. 3, 4, 10, 11월생 직장인은 언행에 각별히 조심. 3, 4월생은 푸른색, 10, 11월생은 검정색이 정말 있는 컬러. 옷을 입을 때 활용하라. 나, 자, 흥 성씨 사업가는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 투자와 확장을 계속하면 빚더미에 앉게 될 듯.



▶**묘띠** 이것이다 생각하면 열심히 힘을 쏟아라. 2, 7, 12월생은 독주보다 협동하면 성과가 큼. 호감 가는 사람과 의리를 굳건히 하면 신뢰를 얻게 될 수. 기, 모, 자 성씨는 초보인데도 날씨가 쌀쌀하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열정 바쳐 일에 몰두하면 결실 보겠다.



▶**진띠** 1, 9, 10, 11월생 오늘 가는 곳마다 인기가 좋을 듯. 당신의 말이 유머가 되는 날. 컨디션이 좋고 머리회전이 잘 되어 하던 일도 다른 날보다 일찍 끝낼 수 있겠다. 기, 모, 자 성씨는 이성교제에 신중을 기해야 실수가 없음을 알고 처신을 잘할 것.



▶**용띠** 위기가 닥쳤을 때 1, 3, 8, 11월생은 임시 변동수를 쓰지 말고 진실된 면모를 보여줘라. 순간의 위기는 넘길 줄 몰라도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음을 명심할 것. 말다툼에 주의하고 응주는 금물. 마가 믿 듯 일의 성취에 장애가 따른다.



▶**진띠** 지나치게 유유자적하면 계층으로 발전할 수 있다. 2, 3, 5, 6월생은 자기계발에도 신경 써야겠다. 푸른색 옷이 힘을 주는 격. 남쪽과 동쪽에 불 일이 있으면 가능한 다음으로 미뤄라. 그 방향은 여러 가지로 불리함. 애정운은 풀릴 수.



▶**말띠** 2, 4, 5, 7월생은 용광로 같은 정열로 고지를 향해 달려라. 길보기에는 약해도 건장한 편이어서 활기찬 모습이 돋보인다. 특히 정보나 통신, 화학 분야 종사자는 길하다. 나, 사, 오 성씨는 투기성 오락은 삼갈 것.



▶**염띠** 내강외유형. 2, 4, 5, 6월생 말수는 적지만 자재로우며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아 따르는 이가 많구나. 모, 바, 피 성씨가 도움이 되는 오늘이다. 상대는 그동안 접근하지 않았다가 당신의 의외의 결단력을 보고 거래를 트려 올 듯.



▶**원숭이띠** 1, 5, 7, 11월생은 두뇌회전이 빠르고 임기응변에 뛰어나다. 그럼에도 직장에서는 개밥의 도토리처럼 따돌림을 당할 때가 많다. 매사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성의를 보일 것.



▶**닭띠** 정신력을 집중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1, 2, 10, 11월생 반석 위에 앉게 되는 격. 그동안의 고난은 해소되고 응지가 양지가 될 수. 모, 바, 피 성씨는 성질이 급해 운전 시 과속할 우려 있다. 5분 앞서려다 50년 먼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개띠** 직장인 3, 5, 7, 11월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 짜증이 난다고 변화를 시도하지 말라. 사표 내고 다른 일을 모색하면 안 된다. 특히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은 위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 직장인보다 못한 생활이 될 수 있음을 알 것.



▶**돼지띠**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각오로 임해야 성과를 거둔다. 5, 9, 10월생 방법은 절대 금물. 주의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 하다보면 생각 외로 큰 득이 됨. 모, 사, 오 성씨는 정 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 말고 덕을 베풀다보면 인연이 생길 듯.